

“작은 푸른숲” 에코클럽 활동

- 1 자치단체명 : 우브르한가이현
- 2 발표자 명 : 소도노무도르지 (Ts. Sodnomdorj)
(아르바이헤르 (Arubaiheeru) 시 제일학교)
- 3 활동 명 : “작은 푸른숲” 에코클럽 활동
- 4 활동기간 : 매년
- 5 활동장소 : 아르바이헤르시
- 6 활동인원 : 32 명
- 7 활동을 시작한 경위 및 발표요지

우브르한가이현 제일학교의 “작은 푸른숲” 에코클럽은 2007 년에 16 명의 학생에 의해 설립된 청소년 조직이다. 현재 참가 학생수는 32 명에 이르며 1,300 명의 서포터와 2 명의 지도교사와 함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에코클럽의 목표 :

에코클럽은 친구들과 같은반 학생, 시민들에게 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리거나 계몽활동을 실시함으로써 그들이 스스로 협력해서 사막화를 막기 위해 나무나 꽃을 심거나 생활속에서 주변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깨끗하게 보전하는 등의 활동을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에코클럽 활동 :

- 에코클럽 멤버인 학생들은 현의 환경관광부와 에코클럽의 지도교사와 함께 2009 년 4 월 17 일부터 5 월 20 까지 “우리 학생들의 참가로 푸른 환경을 만든다” 를 테마로 한 학습회를 실시했다. 이 학습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환경보전의 전통적인 사고를 이해하고, 나무와 꽃을 심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시키기 위한 체험과 학습을 통해서 친구와 같은반 학생들에게 나무나 꽃을 심는 방법 등을 가르치는 등 타인의 모범이 되도록 행동해 왔다.

- 우브르한가이현 아르바이헤르시의 게루지구에 살고 있는 약 400 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2009 년 7 월 2 일부터 9 월 25 일 까지 “우리 시민들이 건전한 환경을 지킨다” 를 테마로 한 학습회를 2 단계로 실시했다. 이 학습회에서는 공용 화장실이나 배수펌프의 위생, 물의 위생 등에 관해서 합계 72 시간의 학습을 실시했다. 생활수준은 낮지만 건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의식이 있어서 우리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가정의 화장실과 배수펌프 등을 지역주민들과 협력해서 수리했다.

- “천화(千花) 축제” 라는 종합활동을 2009 년 9 월 28 일에 학교에서 실시했다. 축제에는 제일학교 학생 합계 40 반 2,400 명, 76 명의 교사, 약 1,300 명의 학부모가 참가했다.

축제에는 합계 2,538 송이의 꽃이 전시되어 “가장 예쁜 꽃”, “가장 진귀한 꽃”, “가장 종류가 많은 꽃” 을 선보인 학생을 뽑아 모두에게 보고했다.

· “쓰레기 없는 깨끗한 환경” 이라는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 활동에는 “버리지 않으면 쓰레기는 없다” 를 테마로 한 학습을 실시했다. 또한 “필요없게 된 것에서 물건을 만들자” 를 테마로 리사이클 재료를 이용해서 만든 작품의 콘테스트나 “누가 가장 좋은 디자인의 쓰레기통을 만드는가” 라는 콘테스트를 실시했다. 돈을 들이지 않고 리사이클지로 쓰레기를 분별하는 쓰레기통을 만든 것은 경제적이었다. 또한 ①환경보전 ②환경오염된 지역의 오염원인 ③인간에 의한 환경파괴 방지대책에 관해서 “청소년들의 참가” 를 테마로 한 그림콩쿨,스피치 콘테스트,퀴즈대회를 자주 실시하고 있다.

에코클럽의 앞으로의 목표 :

오염된 지역의 환경을 보전·복원하는 활동에 보다 많은 동시대의 청소년을 참가시키기 위해 정부나 비정부조직과 협력해서 청소년의 환경에 대한 의식,행동을 변화시키는 학습이나 계몽활동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것과 우리들의 활동을 다른 지역으로 넓히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도 에코클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래를 생각하며 이러한 내용으로 단순한 지역레벨이 아닌 지역을 초월한 그리고,국가레벨에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